

대학생들의 학습 윤리 인식 연구

김진영*

*목원대학교 교수학습센터 교수 jykewha@hanmail.net

College Student's Conceptions of Academic Ethics

Jin-Young Kim*

*Dept. of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Mokw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과제물 및 수업 활동 관련한 학습 윤리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실행 정도, 학습 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 등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학습 윤리 지도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A대학 1,942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제물과 관련하여 '아이디어 도용', '과제 대리 작성', '위조'를 잘못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고 '짜깁기', '중복제출'을 잘못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았다. 과제물 관련 학습 윤리 중 '짜깁기'를 가장 빈번히 하고, 다음 '표절'로 나타났다. 수업 활동 관련 윤리는 '대리시험'을 가장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다음 '시험부정 행위'였고, '무단조퇴'를 잘못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 수업 활동 관련 학습 윤리 중 '무단조퇴'를 가장 빈번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 '무임승차'였다. 과제물 및 수업 활동에서 학습 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는 '학점에 대한 욕심',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고, '자신의 도덕성 결여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 학업 윤리 미준수 이유에 대한 성적 상·하위집단 간 차이는 '자신의 도덕성 결여', '주제에 대한 자신감 결여', '학습윤리 인식 부족' 항목이고, 성별로는 '자신의 도덕성 결여', '학습 윤리 교육 소홀', '학습 윤리 인식 부족' 항목에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1. 서론

2023년 미국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스탠퍼드대의 마크 테시어-라빈 총장이 재임 7년 만에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연구실 논문 부정 책임”이 그를 사퇴하게 만든 요인이었다.[1] 우리나라에서도 고위 공직자 임명과 관련한 자질 검증에서 논문표절과 관련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연구 윤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에서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과 과기부과학기술연구사업 과제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연구 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KIRD에서 대학별로 방문형 연구 윤리 교육을 진행하는 등 연구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국내 학술논문의 연구 성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절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2], 대학과 학회 등 학계에서 학문 분야별 국제수준의 연구 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 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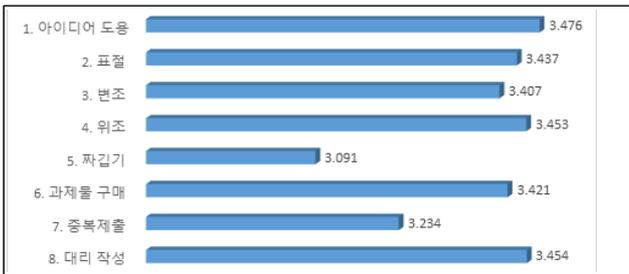
리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많은 대학에서 표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절탐색 시스템(copy killer 등)을 도입하는 등 전문 연구자 뿐만 아니라 학부생의 학업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과제의 중복제출, 과제 작성 시 신뢰할 수 없는 자료 활용, 원문 인용 방식 및 규정에 대한 인식, 표절에 대한 인식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다.[3](이연정, 이주미, 2018).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짜깁기, 문장 무단 사용, 과제물 베껴서 제출하는 것 등이 학습 윤리 문제로 지적되었고, 표절의 가장 큰 이유는 시간 부족이었다.[4] 대학생들은 과제를 작성할 때 짜깁기(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편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하는 정도가 낮았다.[5] 대학생의 학업부정 행위 즉 학습 윤리는 이에 무관심한 대학 풍토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6] 따라서 대학생의 과제 수행 및 수업 활동 관련 학습 윤리 인식을 확인하고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여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기술 및 AI 발달로 인한 표절 등 학습 윤리 뉴노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

야 할 시점이다. 교수자들에게는 학생들의 학습 윤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 윤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과제와 수업 활동 관련 학습 윤리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정도, 학습 윤리를 지키지 않는 이유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첫째, 과제를물 관련 학습 윤리 인식 및 준수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수업 활동 관련 학습 윤리 인식 및 준수 정도는 어떠한가? 셋째, 학습 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적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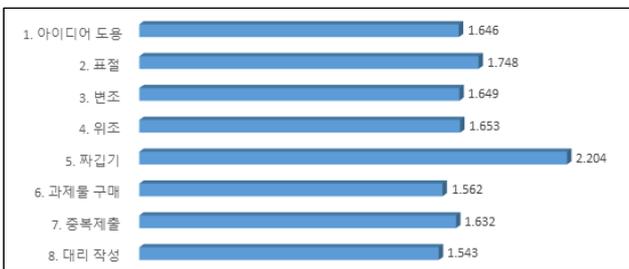
2.1 과제물 관련 학습 윤리 인식 및 준수 정도

과제물 관련 학습 윤리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학습 윤리 인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제물 관련 학습 윤리 항목 중 ‘아이디어 도용’을 가장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다음은 ‘대리 작성’으로 나타났다. ‘짜깁기’는 과제물 관련 학습 윤리 항목 중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가장 낮았고, 다음은 중복제출로 나타났다.



[그림 1] 과제물 관련 학습 윤리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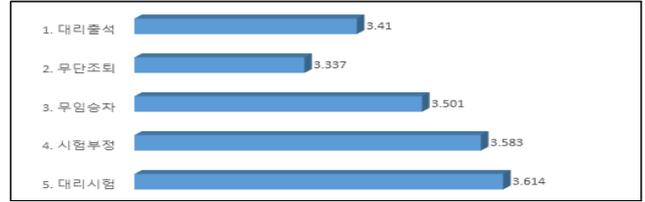
과제물 관련 학습 윤리 실행 정도가 어떠한지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학습 윤리 실행 점수가 높을수록 그 행위를 자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제물과 관련된 학습 윤리 중 학생들은 ‘짜깁기’를 가장 많이 실행하고 ‘대리 작성’을 가장 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과제물 관련 학습 윤리 실행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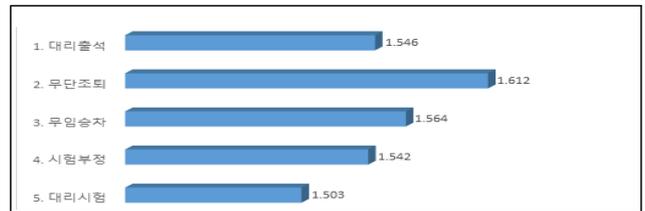
2.2 수업 활동 관련 학습 윤리 인식 및 준수 정도

수업 활동 관련 학습 윤리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리시험’을 가장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인식하고 ‘시험 부정행위’, ‘무임승차’, ‘대리출석’, ‘무단조퇴’ 순서였다.



[그림 3] 수업 활동 관련 학습 윤리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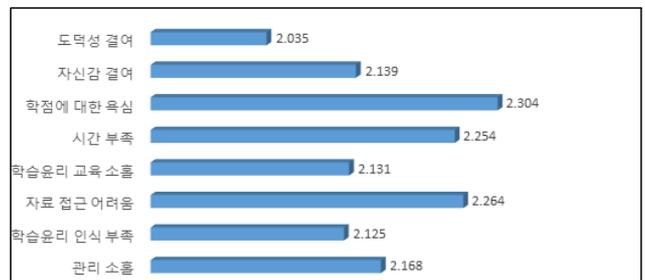
수업 활동 관련 학습 윤리 실행 정도는 [그림 4]와 같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행위를 자주 한다는 의미이다. ‘무단조퇴’를 가장 많이 하고, 무임승차, 대리출석, 시험부정행위, 대리시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4] 수업 활동 관련 학습 윤리 실행 정도

2.3 학습 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

대학생들이 학습 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는 [그림 5]와 같다. 점수가 낮을수록 전혀 동의하지 않고 높을수록 매우 동의한다는 의미이다. 대학생들은 학습윤리를 지키지 않는 이유 중 ‘더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한 욕심 때문’이 가장 크고, ‘관련 자료에 접근하는 어려움 때문’, ‘시간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도덕성 결여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



[그림 5] 학습 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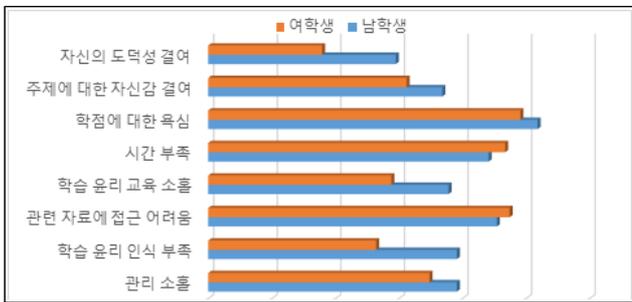
성적 상·하위집단에 따라 학습 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하위집단이 학습 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모든 항목에서 상위집단보다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도덕성 결여’, ‘주제에 대한

자신감 결여’, ‘학습 윤리 인식 부족’은 집단 간에 $p < .05$ 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그림 5] 성적 상·하위 집단의 학습 윤리 미준수 이유 비교

성별에 따라 학습 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 비교는 [그림 6]과 같다. 여학생이 ‘시간 부족’과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이 동의하는 정도가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도덕성 결여’, ‘학습 윤리 교육 소홀’, ‘학습 윤리 인식 부족’ 항목에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그림 6] 성별에 따른 학습 윤리 미준수 이유 비교

3. 결론 및 논의

대학생들은 과제물과 관련한 학습 윤리 중 ‘짜깁기’와 ‘과제의 중복제출’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았다. 실제로 학생들은 ‘짜깁기’를 가장 자주하고 그 다음으로 ‘표절’ 있었다. 이점을 고려해서 각 과목에서 과제를 공지하고 제출받을 때 학습 윤리와 관련한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를 파일로 받은 후 표절률, 짜깁기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성적에 반영하는 등 학생들이 학습 윤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수업 활동과 관련한 윤리 의식은 ‘무단조퇴’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낮았고 실제로 학생들의 ‘무단조퇴’ 실행 정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높았다. ‘무단조퇴’ 다음으로 ‘무임승차’의 실행 정도가 높았다. 대학생의 학업부정 행위 즉 학습 윤리는 이에 무관심한 대학 풍토와 관련이 있으므로[6], 무단조퇴와 무임승차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강의 오리엔테이션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학습 윤리를 지키지 않는 이유 중 ‘더 좋은 학점

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학습 윤리를 준수하는 것이 ‘더 좋은 학점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 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 중 ‘더 좋은 학점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는 응답 다음으로 ‘자료 접근에 대한 어려움’과 ‘시간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과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 주어야 한다. 실제 대학생들은 학과 수업, 아르바이트, 데이트 등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시간 부족’을 학습 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 비교과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시간을 짜임새 있게 설계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습 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도덕성 결여 때문’이라는 응답에 가장 낮았다. 학습자들은 학습 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외부적 귀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학과 또는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 윤리의식에 있어서 교육과 더불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http://www.yna.co.kr/view/AKR20230720008000091>. 연합뉴스(2023.07.20.)
- [2] 교육과학기술부(2008). 연구윤리를 위한 지침
- [3] 이연정, 이주미(2018). 학습윤리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조사 연구 - 문과계열과 이공계열 신입생들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4), 327-347.
- [4] 김윤정, 조혜은(2016).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학습윤리실태와 관련 요인. 한국치위생학회지, 16(6), 1023-1031.
- [5] 이성흠, 윤초희, 최상봉(2011). ‘학습윤리’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중요도-실행도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2(4), 75-94.
- [6] 서운경(2007). 대학생의 표절 지식 및 행위에 대한 조사연구. 여성연구논총, 22, 1-17.